

광양시 '섬진강 마리아 기본계획 및 용역' 착수

해양레저공간 조성 시민 여가 및 관광자원 활용

광양시가 섬진강 마리아 개발을 위한 '광양 섬진강 마리아 기본계획(변경) 및 기본 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최근 여가 트렌드의 변화로 해양레저 분야가 주목받는 가운데 전해의 자연환경을 갖춘 섬진강 및 광양항에 마리아 개발을 통해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관광객 유치에 노련하다. 주요 과제로는 이번 용역대상지인 진월면 망덕리 일원 207.54㎡에 강 마리아를 포함하여 바다와 연결된 광양

항 전반에 걸쳐 해양 마리아 시설 최적지를 찾고, 구봉산 가족어린이테마파크, 망덕관광명소화, 이순신대교 테마거리 조성 등 주변 관광여건과 조화를 이루는 해양·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실현 가능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내·해수면 친수레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여가와 삶의 질 개선은 물론 광양시 관광발전까지 아우러지는 마스터플랜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 섬진강과 광양항 일원의 마리아 조성 여건을 분석, 기본 및 설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타당성과 경제성 검증을 마칠 계획이다. 지윤성 제철항만팀장은 "섬진강과 항만 등 전해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마리아 조성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할 것이다"며 "치밀한 분석을 통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추진으로 실현 가능한 해양레저공간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보성군 "전남도, 의병 역사공원 공모 연기 취지 존중"



보성군은 16일 "전남도 주관의 남도의회 역사공원 대상지 선정 공모 연기 발표와 상관없이 의병정신 함양과 애환심 배양 등 관련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은 이날 전남도 용역사인 광주전남연구원이 남도의회 역사공원 대상지 선정절차 연기를 통보해 오자 "전남도의 연기 취지를 존중해 결정을 수

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답답히 의병공원 유치 준비를 이어가고 '의향의 고장 보성' 이미지를 확고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은 올해 3월 민·관·군이 참여해 남도의회 역사공원 유치 추진단을 구성해 가장 먼저 남도의회 역사공원 유치에 뛰어들었고 공무원이 확보에도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달 3일 열린 전 군민 유치 결의 대회에는 2000여명의 군민이 함께했으며, 이는 자발적인 군민 유치 서명운동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남도의회 역사공원 공모를 준비하면서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단결한 보성군민의 의지와 실행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게 됐다"며 "공모와는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온 군민과 함께 홍보활동, 각종 선양사업 등을 전개해 의향의 고장 보성을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전남도 2022년까지 기념관과 공원, 체험관 등 호남지역의 의병 역사를 재조명하는 역사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23일 도내 지자체들로부터 유치제안서를 접수해 심사를 거친 후 이달 말 임지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공원 조성 계획을 보완한 임지를 선정하기로 하고 공모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성=인규기 기자

곡성군, '2030 청년농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곡성군은 오는 20일 죽곡면 강빛마을에서 2030세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갖는다. 워크숍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농업경영컨설팅 전문가의 성공농업인 사례분석, 경영장부 활용법, 각종 서류작성법 교육과 유통전문가와 한

께 전자상거래, 직거래 방법을 공유하는 세미나 형식으로 구성되어있다. 곡성군은 2022년까지 신규 청년농 100명 육성을 목표로 각종 지원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곡성군은 청년농업인이 더욱 튼튼한 농업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2030 청년들의 정기적인 간담회와 청년농업인 성공사례 벤치마킹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년농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듣고 맞춤형 청년농 지원 사업을 꾸준히 발굴할 계획임을 밝혔다.

곡성=김광희 기자

순천시, 경남 창원서 '순천으로 놀러오세요' 홍보



순천시는 최근 시 직원 문화관광해설사, 청춘여행길잡이 등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남 창원시에서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순천여행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일 순천 방문객

이 500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 이를 기념하여 '2019 순천방문의 해' 전만 한 가운데 경남 창원시에서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순천여행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일 순천 방문객

참가자들로부터 순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했다. 또한 오후 7시까지 창원 상남재래시장, 마산역 상가 등 퇴근길 길거리에 삼삼오오 게릴라식 홍보활동을 전개해 지나가는 시민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시 관계자는 "1000만 관광객 유치 달성을 목표로 더 많은 관광객이 순천을 찾을 수 있도록 본격적인 하반기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순천을 적극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100만, 200만, 300만 방문객 돌파기념 홍보행사를 순천역을 시작으로 광주유스퀘어광장, 부산서면시장 및 시민공원에서 활발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지리산사람들, 생태인문 연속강좌

구례백두대간생태교육장

'국립공원유지하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 (이하 지리산사람들)에서는 오는 9월 22일까지 구례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서 청소년, 성인 등 지리산권역 시민을 대상으로 생태인문연속강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속강좌는 '기후위기'라는 주제 아래 4개의 강좌로 구성한다.

▲1강 '아이들과 함께 기후위기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강좌로 정해진 퍼미컬리스트이자 실상사 작은학교 마을교사가, ▲2강 '기후 위기 시대의 지역살림, 나라살림, 지구살림'은 '착한 전기는 가능하다', '엠펙대 민주주의' 등 저자 하승수 작가가 진행한다. ▲3강 '사람할까 먹을까 : 기후위기 시대, 살림의 발상'에서는 국내 최초 한국

의 돼지사육 환경을 담아낸 영화 '잡식가족의 딜레마'의 황윤 감독이 진행하며, ▲4강 '다음 세대 생태운동'에서는 동아시아 다음세대 활동가인 고석수님이 진행한다. 자세한 강의 일정은 구례지리산생태인문관리사무소 홈페이지 (<http://ecopark.gurye.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구례=박진호 기자

고흥군, '우리 쌀 식품가공 기술교육' 실시



고흥군은 우리 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육을 통해 지역단위 실천 가능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단체급식

관계자 및 선도농업인과 소비자 30명을 대상으로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을 지난 12일과 14일에 실시하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멥쌀과 찰쌀을 이용한 구운과자, 브라우니, 쿠키, 찜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보는 실습 교육을 통해 다양한 요리법을 익히고, 다각적인 활용방법을 알려 우리 쌀 소비 촉진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

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에 참가한 단체급식 관계자는 "우리 농가가 생산한 건강한 쌀을 자라나는 학생들이 좋아할 간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리를 배워 뿌듯하다"고 했고, 카페를 운영하는 한 사업가는 "카페에서 활용할 메뉴를 찾았는데 이번 교육에서 답을 찾았다"고 교육 소감을 밝혔다. 가공 및 조리교육과 관련된 상담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계(☎ 061-830-6854)에서 가능하다.

고흥=한윤섭 기자

여수시, 부모님과 함께하는 원예교실 '호응'

식물로 사막 정원 만들어

여수시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진행된 '부모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원예교실'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여수시 홈페이지 OK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프로그램 참

가자 60가족을 모집했다. 참여 가족은 식물의 특징과 관리요령을 배우고, 선인장과 다육식물로 사막 정원을 만들었다. 또, 농업기술센터 농촌체험장 식물원 등을 견학하며 농촌과 농업에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도시민 녹색생

활 원예교실'을 운영했다. 오는 10월에는 '실버세대 녹색체험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잘 사는 여수시 만들기"를 목표로 도시민 가족텃밭, 학교 도시농부 자투리 텃밭, 도시민 녹색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여수=송기홍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심항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시민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직책별 인사관리방안 안내